김포시민 함께한 줌머 설 축제 '보이사비'

재한줌머인연대, 4월 19일
김포호수공원서 새해 축제
"평등 · 화합 · 희망 나눈 자리"
시민 참여 문화축제 '눈길'

김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재한줌머인연대는 4월 19일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제21회 보이사비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동참자들이 평화 행진을 하고 있다.

"바뚜루뚜루(안녕하세요)! 21번째 줌머인들의 축제, 보이사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난민 공동체인 재한줌머인연대 차르마 니킬 회장이 고국의 언어로 2026년 보이사비 축제의 시작을 알리자, 축제에 함께한 500여 줌머인과 김포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한줌머인연대는 4월 19일 김포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제21회 보이사비(Boi-Sa-Bi)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줌머(Jumma) 공동체의 전통 설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줌머인은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의 선주민으로 차크마, 마르마 등 11개 민족으로 구성된 소수민족이다.

이날 축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줌머 11개 소수민족 대표와 내빈,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꽃받침 전통의식과 평화 행진으로 시작됐다.

보이사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줌머 소수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방글라데시 신년인 4월 14일 전후로 연말과 새해 첫날에 걸쳐 3일간 진행된다. 꽃 축제와 나눔, 조상 기림 등의 의례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축제에서 니킬 재한줌머인연대 회장은 "보이사비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평등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자리"라며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줌머 공동체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넬 재한줌머연대 고문도 "줌머인들은 오랜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왔다"며 "보이사비 축제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또 김포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평등과 용서, 화합 정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에 함께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20년 넘게 축제를 이어온 재한줌마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시장은 "김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줌머 공동체의 전통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재한줌머인연대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있었다. 니킬 회장과 로렐 고문은 김포 연운사와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다.

축제는 줌머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트리푸라 지역 춤과 전통 음악 공연, 어린이 합창단 무대, 악기 연주 등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전통놀이도 진행됐다. 특히 줌머 2세들이 공연을 통해 축제에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줌머 2세들에게도 줌머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재한줌머인연대 측의 설명이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줌머 전통 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한줌머인연대 측은 "보이사비 축제는 줌머 공동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축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수좌회,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4월 21일 대구 동화사서 출정식
전국 선원 수행 사진 · 영상 모음
"조계종 정통 수행법 선 진작"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가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근간인 선원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1일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 설법전에서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출정식'을 봉행하고 전국 선원의 수행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추진된다.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수좌회 의장 환경 스님이 대독한 출정사를 통해 "이 자료가 미래 수행자들에게 소중한 참고가 되고 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인 선과 선풍을 크게 진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으로도 선수행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원과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축사에서 선원 수행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자료집 편찬이 선풍을 계승하고 수행 가풍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선원 수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님들의 가르침과 선원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면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원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이번 자료집 편찬을 통해 전국 선원의 수행 환경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한편, 변화하는 수행 환경 속에서 선풍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불교계 '지구의 날' 환경실천 다짐

4월 22일 조계사 앞서 캠페인
일회성 아닌 일상 실천 당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불교계가 생명존중과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동참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지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불교기후행동(대표 일문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4월 22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생명가치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고통, 불교계가 함께 끕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 동참자들은 지구를 위한 실천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동참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언급하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되찾을 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피켓을 든 동참자들은 덜 소비하고 덜 버리는 삶,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등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구의 날을 일회성 기념일이 아닌 일상 속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동국대 BMC 선센터 '후불탱화' 점안

4월 21일 점안법회 봉행
돈관 스님 "정체성 확립"
중앙광장 '白象' 제막도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는 4월 21일 종합강의동 1층 선센터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새로 조성된 후불탱화에 점안의식을 하는 모습.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 선센터를 장엄할 후불탱화가 새롭게 조성됐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이하 BMC)는 4월 21일 종합강의동 1층 선센터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BMC 학생들의 신행을 책임지는 학내 도량인 선센터를 장엄하는 후불탱화는 부산무형문화유산 목조각장 청원 스님(WISE캠퍼스 석좌교수)이 조성했다.

도상은 인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촉지인을 맺고 악귀를 조복시키면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담았다. 부처님 양옆에는 10대 제자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 12보살들이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증명법주로서 법상에 오른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학교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의 회향을 축하했다. 스님은 "BMC가 2011년 설립됐는데 오늘에서야 선센터가 마련되고 후불탱화가 조성됐다는 것은 시절인연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불사가 회향됐다는 점이 환희롭기만 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정체성은 '바를 정(正)'에 '몸 체(體)'에 '성품 성(性)'을 쓴다. 이는 바른 실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면서 "오늘이 바로 BMC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다. 법당의 후불탱화가 점안된 만큼 학생과 교직원이 마음을 달래며 신행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BMC 선센터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전법 포교의 공간이자 불교동아리 재학생들에게는 마음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는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나아가 생명을 탐구하는 학문의 장 속에서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체득하는 BMC만의 특별한 신행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점안법회 후에는 BMC의 상징물이 될 '백상(白象)' 조형물 제막식도 열렸다. 중앙광장에 조성된 '백상'은 1971년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제42회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정성으로 서울캠퍼스에 조성됐다. 2015년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과 BMC의 발전을 기원하며 현 위치로 이전했다. 고양=신중일 기자

"선명상으로 마음 다스리면 세상 정토"

4월 17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서
분별심에서 벗어나 '보살' 삶 강조



음력 3월 1일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세상이 곧 정토가 된다"고 선명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4월 17일 삼각산 도선사에서 초하루 법회에서 법문에 나섰다. 스님은 먼저 우리 사회의 불안한 현실을 짚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불안하고 편치 않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가 67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제시했다.

스님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보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선명상"이라며 "선명상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불안과 잡념이 줄어들고, 탐·진·치 삼독심이 약해지면 보다 평안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과 선명상을 실천하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며 "그럼 저절로 걸림 없는 자비행으로 따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아무리 기분 나쁜 일도 마음을 턱턱 내려놓는다면 그게 다시 선업으로 돌아온다"며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도 극락정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 역대 조사 기리는 '곡우다례재'

4월 20일 진우 스님 등 200명
한국불교 버팀목된 조사 기려



곡우를 맞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본산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역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며 종단의 법맥과 정통성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0일 대웅전에서 '총본산 곡우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종조 도의 국사, 중천조 보조 지눌 국사, 중흥조 태고 보우 국사 등 열일곱 조사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조계종의 역사와 종지·종풍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담화 스님은 "곡우다례재는 조사 스님들에게 차를 올리는 법석으로 올해 3회째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스님들의 가피로 종단과 조계사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업식(業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끊임없이 시비와 피아를 구분하며 결국 싸우고, 경계하고, 상대를 이겨야 하는 불편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게 된다"며 "모든 건 연기법대로 순환됨을 알고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순간의 괴로움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문을 마친 진우 스님은 조사 스님들께 향과 차를 올려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계사 사중 스님 등이 차와 지화를 공양하며 추모했다. 법회는 역대 조사 위패를 소지하는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이현희 수습기자

금강종 종정 송천 대종사 원적

2008년 제2세 종정 추대



대한불교금강종 제2세 종정 무학당(茂學堂) 송천(松泉) 대종사〈사진〉가 4월 13일 원적에 들었다.

송천 스님은 1967년 부산 범어사에서 덕인당 스님을 은사로, 일붕 서경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며 불문에 들었다. 1970년 경산 천성사에서 일붕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무학'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89년 일붕불교대학, 1992년 일붕삼장대학원을 졸업했고 2007년에는 네팔 탕고대학교에서 명예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금강종 제2세 종정에 추대됐다. 대구 인각사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 양성과 종단 발전에 헌신해 왔다. 노덕현 기자



동화사에 온 아기 부처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4월 23일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동자승 삭발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생 이준, 임지성, 임지홍 어린이가 동참했다. 이들은 삭발 후 장삼과 만의를 수하고 수계첩과 108염주를 받으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활동하게 된다. 글 ·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